

국제정치의 탄생: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탐색 1494~1763

김 준 석(가톨릭대학교)

◆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근세 초'

- 유럽사에서 대략 1500년경부터 1800년경 사이의 시기는 '근세 초(early modern period, Frühe Neuzeit)'라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시기 구분이 서구 역사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 영미 역사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독일 역사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근세 초 역사가 별도의 시기로 다루어지기 시작.
- 이 시기 유럽은 인구의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 17세기 중반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역시 완만하고 꾸준하게 성장한 경제의 발전,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종교개혁, 아메리카, 아시아 등 비유럽 지역으로의 상업적 진출, 인쇄술, 화약술을 비롯한 신기술의 도입과 확산, 르네상스, 과학혁명, 계몽주의 등 혁신적 사고체계의 등장 등의 변화를 경험.
- 유럽 근대사에서 1800년경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그 이전 시기를 따로 고려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중세시대로부터의 유산과 새로운 변화가 긴밀하게 공존한 '이행기'였기 때문임. 유럽사에서 근세 초는 '옛것'과 '새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시기,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한 시대였음.
- 근세 초 유럽에서 근대적인 발전은 언제나 과거의 규범과 관습, 관행 속에서 이해됨.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는 그 내용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과거로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두드러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관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
- 국제정치학에서 유럽 근세 초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근대적인 국제정치질서가 처음 등장하여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로 알려져 있음.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인 근대국가(modern state)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여 그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 근대국가들 간 관계로서의 다국 체제 역시 이 시기에 그 모습을 드러냄.
- 일반적으로 근세 초 300여 년의 국제정치사는 1494년, 1648년, 1714/15년, 1789/1815년 등을 기점으로 구분됨.
-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r.1483-98)가 이탈리아 침공. 이탈리아 전쟁의 시작. 1559년 '카토-캄브레지 조약(Treaty of Cateau-Cambresis)'이 체결될 때까지 70여 년 간 계속됨. 이탈리아 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전쟁은 이후 발루아(Valois)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합스부르크 제국'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짐. 둘 사이의 세력다툼은 이탈리아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피레네 조약(Treaty of the Pyrenees)'이 체결된 1658년까지 또는 1700년 프랑스 부르봉가의 필리프 앙주가 펠리페 5세로서 스페인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지속됨. 프랑스-합스부르크 갈등은 근세 초 유럽 국제

정치사의 중심축 중 하나.

- 1648년에는 30년 전쟁의 종료와 함께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체결. 조약을 계기로 유럽 국제 정치질서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감소. 적어도 종교 갈등을 이유로 국가들이 전쟁까지 불사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됨.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들 간 관계의 기본 규칙으로서의 주권원칙이 확립되는데 기여.
- 1714년에는 스페인왕위계승전쟁의 종료와 함께 위트레흐트 조약이 체결. 세력균형이 언급됨. 영국이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

◆ 왕조-군주정의 문제

- 근세 초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정치체제는 군주정. 군주에게 지나치게 큰 권한이 부여된 나머지 이들의 다분히 개인적인 선호나 신념이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곤 했음. 특히 군주의 선호와 신념이 결정적. 펠리페 2세(r.1556~98)가 지녔던 특별한 종교적 소명의식은 스페인이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넘어 국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 원인이 됨.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r.1740~88)는 중요한 대외정책 상의 결정을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내림. 7년 전쟁(1756~63) 기간 중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는 여제 엘리자베타(r.1741~62)가 사망하고 평소 프리드리히 2세를 흠모하던 표트르 3세(r.1762)가 그 뒤를 잇자 일시에 싸움을 중단하기로 결정.
- 명예와 위신의 중시.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주와 왕조의 영광과 명성을 드높이는데 있었음. 루이 14세(r.1643~1715)의 재위 기간 동안 프랑스가 벌인 다섯 차례의 전쟁 중 적어도 처음 두 번의 전쟁의 경우 젊은 국왕이 자신의 군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강함. 오스트리아의 카를 6세(r.1711-40)는 1715년 라슈타트 조약의 체결로 스페인 왕위를 포기하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1725년까지 스스로를 스페인 국왕으로 칭함. 카를 6세를 승계한 마리아 테레지아(r.1740~80)는 오스트리아계승전쟁에서 프리드리히 2세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에게 쉐레지엔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은 뒤 이를 되갚기 위해 절치부심 정부제도와 군대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섬.
- '소유적 왕조주의(proprietary dynasticism)'. 군주와 그의 조력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왕조의 이익과 동일시함. '짐이 곧 국가(L'État, c'est moi)'. 근세 초 유럽의 군주는 국가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왕조의 '소유물,' '가산(家産)'으로 간주.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재산의 관리와 증식을 의미.
- 테슈케(Benno Teschke)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체질서의 '근대성'을 부정. 근세 초 유럽에서 벌어진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은 왕조들의 '재생산 전략'의 충돌이었음. 이 시기 국가는 전쟁을 통한 영토의 획득 못지않게 왕조 구성원 사이의 혼인을 통한 팽창을 추구. 이 시기에 발발한 전쟁들 중 상당수가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으로부터 비롯됨. 가장 대표적으로 스페인왕위계승전쟁(1701~1714). 아나키, 생존을 위한 권력투쟁, 세력균형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소수의 행위자로 이루어진 '왕조 네트워크'에서 어느 왕조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의 문제가 전쟁을 포함한 국가

의 대외정책을 결정. 테슈케는 이 시기의 유럽 국제정치체제가 “표면상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중세 시대와 더 많은 연속성을 지녔다고 결론내림.

◆ ‘persistent heterogeneity in polity forms’

- 대부분의 근세 초 유럽 국가는 ‘composite monarchy’로 존재. 여러 영토가 군주를 중심으로 한데 묶이는 형태를 취함. 각 영토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누림. 군주와 지역 엘리트 사이의 협상을 통해 가장 세금 수준 등이 결정됨. ‘personal union, not a union based on nationality’. 가장 대표적으로 합스부르크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지만 프랑스, 영국, 스웨덴, 브란덴부르크-프러시아, 덴마크,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거의 모든 국가가 composite monarchy로 분류될 수 있음. 영국과 스코틀랜드. 1603년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1603~1625)로 영국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두 나라는 별개의 국가로 존재. 1707년 Acts of Union으로 정식으로 합병. 1714년 하노버 선제후 조지 1세가 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다시 composite monarchy가 됨. 조지 1세와 조지 2세의 영국 국왕으로서의 이해관계와 선제후로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않음에 따라 여러 어려운 문제가 발생. 프랑스의 pays d’election과 pay d’etat. 부르고뉴, 브르타뉴, 랑그독, 프로방스 등.
- composite monarchy의 각 구성 영토 사이의 결속력은 그리 크지 않았음. 빈번하게 반란이 발발. 네덜란드, 나폴리, 카탈루냐(1640-59), 보헤미아(1618). 주변 국가들의 개입. 영국과 프랑스가 네덜란드 반란에 개입, 카탈루냐 반란에 프랑스가 개입, 보헤미아 반란에 스페인이 개입. 근세 초 유럽의 크고 작은 전쟁 중 상당수는 composite monarchy에 대한 반란에서 비롯됨. 네덜란드 독립전쟁(80년 전쟁), 30년 전쟁.
- 독일의 신성로마제국. 넓게 보면 composite monarchy에 포함될 수 있음. 이종의 state-building이 이루어짐. 15세기 말~16세기 초의 ‘제국개혁운동(Reichsreform)’ 이후 제국 차원(Reichskammergericht, Reichskreis, Reichsarmee...)의 국가건설과 영토제후국(Reichsfürstentümer, territorial principalities) 차원의 국가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짐. 30년 전쟁은 두 차원의 국가건설 프로젝트 사이의 충돌. 결과는 무승부. 기존 견해에서는 영토제후국의 승리, 사실상의 주권국가로의 승격으로 봄. 하지만 적어도 1740년까지 제국은 ‘a viable political institution’으로 기능. 제국의회(Reichstag)의 상설화. ‘제국’과 ‘연방’, ‘봉건적 정치체’의 특징이 모두 나타남.
- 베스트팔렌에서 대다수 독일 제후국들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예컨대 제후국들은 황제가 재위 중에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관행인 ‘비벤테 임페라토레(vivente imperatore)’를 폐지하자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제안을 거부. 제후국들은 흔히 ‘주권(sovcreignty)’으로 잘못 번역되는 ‘영토권(ius territoriale, Landeshoheit)’을 비롯하여 과거부터 누려왔던 각종 권리와 특권을 재확인 받았고, “보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제후국들이나 제국 밖의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받음. 황제는 제국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동맹을 맺을 때,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법률을 해석하거나 공포할 때 제후국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됨. 하지만 30년 전쟁 훨씬 이전부터 제후국들은 동맹 체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들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행사.

- state building from below: 네덜란드, 스위스. 'going Swiss, going dutch'

◆ universal monarchy or balance of power

- Johannes Burkhardt: 근세 초 유럽 국가는 모두 universal hegemony를 추구했다고 주장. 이전부터의 정치문화적 전통, 규범, 이념.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의 합스부르크 스페인, 루이 14세의 프랑스,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부르크하르트는 universal hegemony의 추구가 근세 초 유럽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이유가 되었다고 봄.
- 실제로 그러했는가?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을 제기.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동원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존 영토를 유지하기에 급급했음. 카를 5세, 펠리페 2세 모두 재위 전 기간에 걸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몇 번에 걸친 채무 불이행 선언. representative assembly를 중심으로 한 귀족과 도시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중국을 비롯하여 거대 제국건설에 성공한 지역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 루이 14세 프랑스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기는 어려움. 루이 14세가 주도한 5번의 전쟁을 비롯한 프랑스 대외정책은 모두 당시의 국제정치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음. 프랑스의 막강한 위세에 두려움을 느낀 여타 유럽 국가들이 루이 14세가 universal monarchy를 건설하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프랑스가 제기한 영토 할양 요구 중에서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는 거의 없었음. 오히려 프랑스가 들인 전쟁 노력의 크기, 프랑스가 거둔 승리의 규모에 비해 프랑스의 요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음. 루이 14세의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한 국경선의 확보.
- 힌슬리(F. H. Hinsley): 힌슬리는 1714년 위트레흐트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유럽에서 비로소 근대적인 국제정치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봄. 18세기 이전에는 여러 국가들 중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지닌 어느 하나의 국가가 여타 국가들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물론 이 하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힘과 영향력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기에 유럽은 하나의 제국이 되는 운명은 피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이 하나의 국가는 기독교 세계 전체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등 스스로를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음.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의 스페인, 루이 14세의 프랑스가 각각 16세기 전반과 후반, 17세기 후반에 이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던 국가들임. 18세기 초 위트레흐트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 루이 14세의 프랑스가 9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면서 결정적으로 약화되었고, 이후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엇비슷한 국력의 몇몇 국가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시기가 도래함. 위트레흐트 직후에는 프랑스와 영국,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가 공동으로 유럽 국제정치체제를 이끌었지만 곧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러시아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5강 체제'가 완성됨.
- 힌슬리가 주장하듯이 위트레흐트를 전후하여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세력균형이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명시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았을 뿐 국가들은 이 원리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위트레흐트를 계기로 세력균형이 국제정치질서의 바람직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이 확산됨.

- 스페인왕위계승전쟁: 국가와 영토를 '소유물'로 간주하는 유력 왕조들 사이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전근대적'인 이슈가 도화선이 됨. 부르봉이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스페인 왕위계승이 유럽국가 간 힘의 균형의 붕괴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명확해 보였고,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시작할 동기를 제공. 단순한 '재산싸움'이 아니었음. 스페인 왕위계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 그리고 프랑스가 카를로스 2세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오스트리아와 함께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 스페인왕위계승전쟁은 특정 가문의 왕위계승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세력균형전쟁', '예방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음. 해결책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금지과 스페인 영토의 할양. 스페인이 composite monarchy였기 때문에 가능한 해결책.